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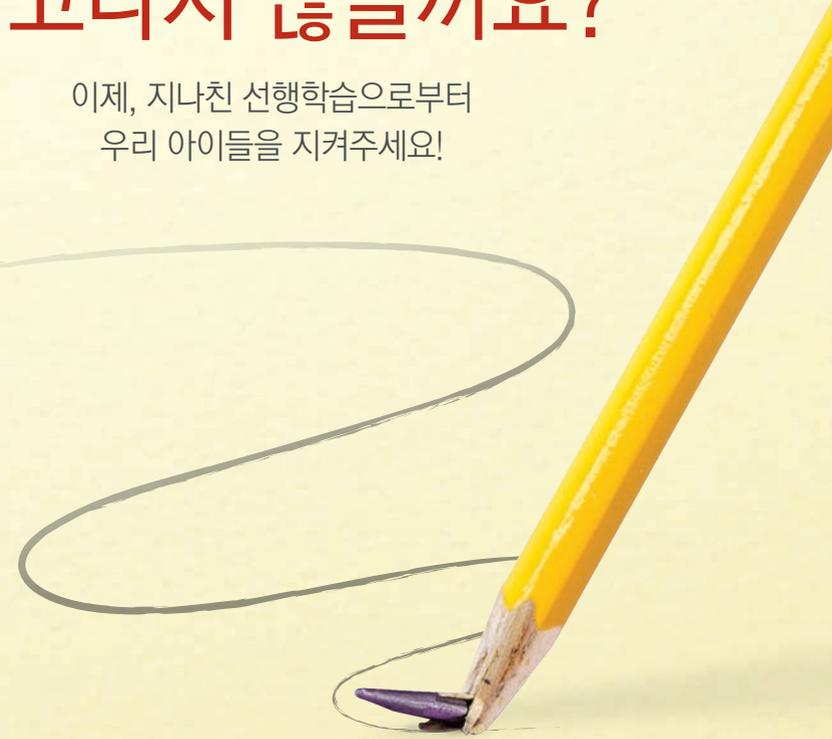


부모의 생각 바꾸기

- 우리 아이들이 학교진도에 맞추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선행학습을 하면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로 공부하라고 강요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몰기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가느다란 전선에 과도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과부하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으로 공부를 잘 할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과도한 선행학습은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습 흥미와 자기관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니라 아이의 학습연령과 학습진도에 맞는 제철 적기학습을 하고,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공부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과속**하면 사고나지 않을까요?

이제, 지나친 선행학습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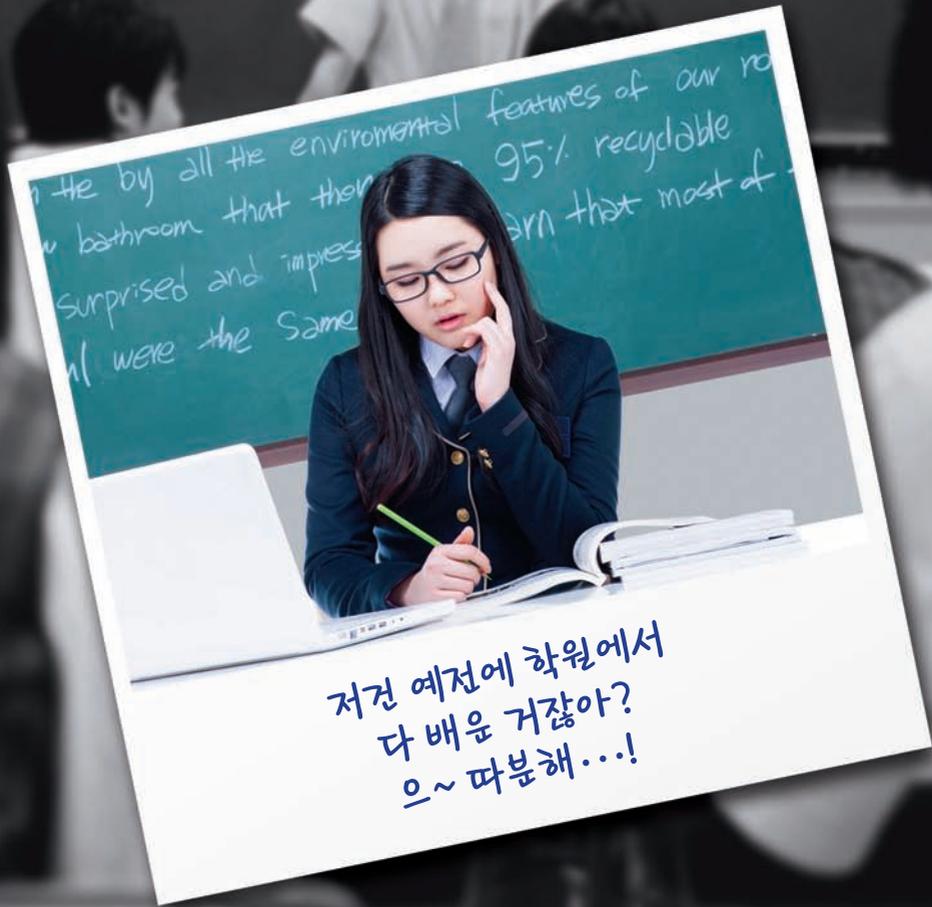


발행처 :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북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우리 아이들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하도록,
교실에 질문이 넘쳐나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나친 선행학습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 선행학습의 폐해 · 문제점	04
◆ 학령에 맞는 제철 적기학습의 필요성	06
◆ 선행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	08
◆ 달라진 교육환경에 대한 고민과 해답	20
◆ 자기주도학습 습관 만들기	34
◆ 선행학습 해소 추진계획	38
◆ “섬 소녀에서 글로벌 소녀로” (학생 수기)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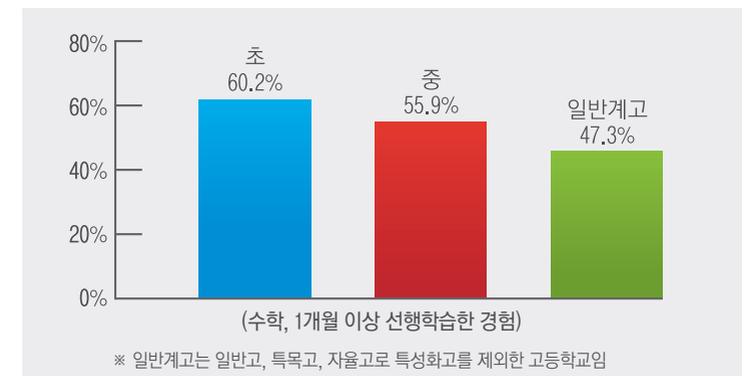


교실에서 질문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지나친 선행학습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공부하는 재미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교육은 학교수업 보충의 역할을 넘어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몇 년씩 학교 진도를 앞서 가는 선행학습형 사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의 막연한 기대심리와 불안심리를 이용한 학원의
마케팅 전략 때문에 보충학습이 필요한 하위권 아이들까지 무의식적으로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과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교실에서는 질문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부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행학습 경험 학생비율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학습활동 실태조사('12), 전국 1,250교 초3~고2 학년급 학생
약 100만명 온라인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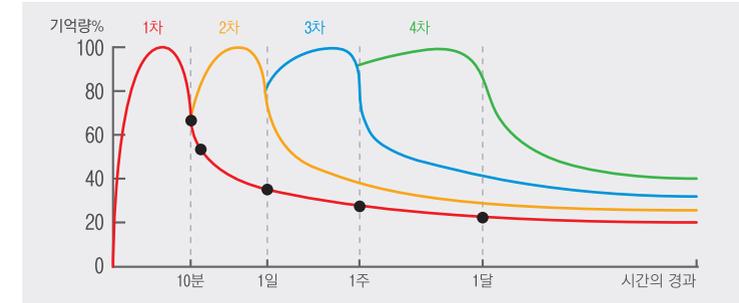
그때그때 알고
넘어가니까
공부가 재미있어요!

이제, 설익은 선행학습보다 맛있는 제철 적기학습을!

제철과일이 가장 맛있듯,
공부도 학교 진도에 맞춘 제철 적기학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동기에는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의 나라를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이 시기에 누려야 할 다양한
취미 활동과 여가 생활, 독서를 통한 깨달음을 모두 잃고 생각할 시간, 휴식이
없이 오로지 진도경쟁, 속도경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지나친 선행학습보다는 학습 연령과 학교 진도에 맞는
제철 적기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학년에 맞추어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꼼꼼하게 익혀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교실마다 질문이 넘쳐나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은 '적후 학습'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습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0분 후에 1차 복습하면 1일 동안 기억되고, 1일 후 2차 복습하면 1주일 동안,
1주일 후 3차 복습하면 1달 동안, 1달 후 4차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 출처 :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 중에서



선행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어는 어릴수록 빨리 습득한다는데 한 살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어는 빠르면 빠를수록 습득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어릴 때는 뇌가 활발히 발달하는 시기이니까,
뇌 자극을 많이 줄수록 더 좋지 않을까요?



골똥엄마 베플
나이에 따라 뇌의 발달 영역이 달라요.

금금맘
맞아요. 때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열심아빠
하지만 영어 등의 언어는 우리말 배울 때 같이 학습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맘마미아
글쎄요. 어려서는 이해력이 부족해 스트레스만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실

지나친 조기교육은 뇌 발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는 특정 시기마다 발달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뇌 발달 시기에 적절한 자극은 뇌 기능의 발달을 돕지만, 과도하고 장기적인 자극은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0~3세의 시기에 과도한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및 정서 발달 기회를 놓쳐 의사소통은 물론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자폐와 같은 정신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 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법

나이	주요 뇌 발달 내용	교육방법
0~3세	고도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 골고루 발달	정서발달을 중심으로 오감학습을 통해 두뇌를 골고루 자극
3~6세	전두엽(종합적인 사고력 등을 조절)이 보다 빠르게 발달	예절·인성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함 ※세 살 버릇 여든까지
6~12세	측두엽(언어·청각 기능)과 두정엽(수학·물리적인 사고)이 빠르게 발달	한글과 영어 등 본격적인 언어교육 시작
12세 이후	후두엽(시각 기능)이 많이 발달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인정하는 시기로 자아 성찰 교육 필요

▶ 출처: 서유현 교수 (한국뇌연구원 원장), '뇌 발달 시기에 맞는 교육법', '11년 사교육정책중점연구포럼 자료집,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선행학습을 하면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는 옆집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남들보다 먼저 배워 놓아야 아이가 기죽지 않고 자신 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감이 생기면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왕엄마 베를

그렇지만 선행학습에 대한 부작용도 많다던데...

청포
아이 학습량이나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웅진형
영재 아이들이나 상위 몇 % 아이들이 하다 보니 유행처럼 번진 것 같아요.

영마마
맞아요. 그래서인지 다들 경쟁적으로 진도를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진실

알고 있다는 착각이 공부의 흥미를 떨어뜨립니다

선행학습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다는 착각 속에서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데 익숙해져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공부의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양분 '선행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

선행학습 과외를 받은 상위권 학생들, 중2 중반부터 비과외집단 보다 성적 떨어져



상위 30% 학생들의 국어 성적에 대해 선행학습 과외를 받은 집단과 비과외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중2 중반부터 과외집단의 성적이 비과외집단의 성적보다 떨어졌으며, 특히 입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중3과 고2 때 점수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 : 개인과외 및 학원수강 포함)

▶ 출처 :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이종태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2)



고등학교 진학하면 학습량이 많아 수학은 중3 때 끝내야 한다던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게 많잖아요.
초·중학교 때는 학습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고등학교 수학은
미리미리 공부해야 간신히 따라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중3 때 수능 문제 푸는 아이도 있던걸요?
그런데 정말 알고 푸는 건지, 효과는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양재동맘 베플
수학은 개념 이해가 중요하죠. 진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울엄마
그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파란하늘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응용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진도만 앞서가는 것보다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마미
그래서 저도 개념위주로 심화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진실

능력과 수준에 맞는 심화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진도만 앞서 나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학은 단계적 학습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중학교 과정을 100% 이해하는 복습과 심화학습이 우선입니다.



어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민

저는 학교성적이 반에서 1등 정도입니다.
학원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성적을 더 높이고 싶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수학은 기말고사에서 76점이 나왔는데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과정도 솔직히 100%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학원에서는 무조건 진도만 나가고 . . .
그러다 보니 학원공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학교수업도 재미가 없고, 수학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Tip.

선행학습보다는 심화학습에 의한 중학교 과정의 정확한 개념 이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실력을 끌어 올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애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을 특히 어려워해요

고등학교 수학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중3 때 고1 수학 선행 학원에 보냈는데도
1학기 중간과 기말, 다 60점대...
2학기부터라도 수학을 잘해야 할텐데 걱정이네요.
학습량은 더 많아질텐데...



진실

수학은 개념정리와 심화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수학은 단계적인 학문이라 기초가 안 되어 있다면 윗단계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응용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쉽게 무너져 버리죠.
아무리 선행학습을 해도 기초가 안 되어 있다면 사상누각이 됩니다. 다른 학생이 하니까 무작정 따라 하는 선행학습보다 복습을 통해 기초를 다지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복습과 심화학습으로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 수학의 지름길입니다.



어느 S대 합격생의 수학공부 비결

보통 방학 때 거의 모든 학원에서 수학 진도를 앞서서 가르칩니다. 학생들 역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학원 스케줄에 따라 선행학습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나 수학은 단계적 학문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지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남들은 선행하는데 나는 복습이나 하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능이라는 긴 목표를 생각할 때 수학은 계속 복습과 심화학습으로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수학에 자신감이 불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신맘 **베플**

선행학습 한 아이 중, 기초가 되어 있는 애들이 몇 %나 될까요?

- 윤수엄마**
맞아요. 기초가 흔들리면 선행은 하나 마나죠.
- 프로맘마**
고등학교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우리 애도 당황해요.
- 장호맘**
지금부터라도 선행학습 위주로 시켜야 할 지?

우리 애는 혼자서 공부하는데 선행학습 하는 애들보다 뒤쳐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신도 좋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잘 적응하고 있는데 엄마들 모임에서
선행학습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기도 해요.
제가 아이를 잘못 지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똑똑맘 베를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죠.
하지만 나중에 제 실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진희مام
저도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조금합니다.

열공엄마
맞아요. 아무래도 엄마 입장으론 선행학습을 해야 맘이 든든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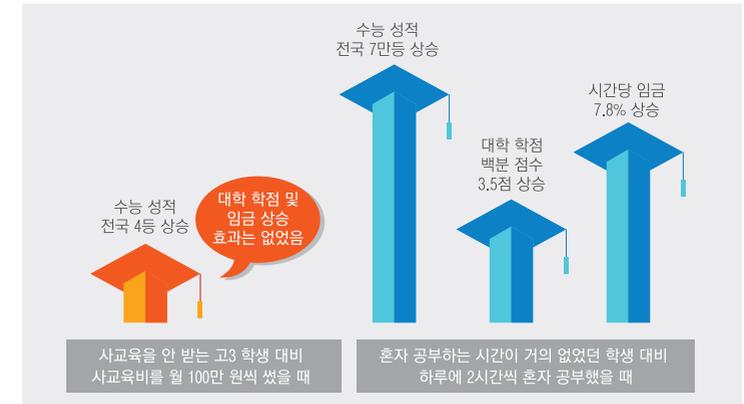
초보엄마
저도 혼자서 공부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진실

길게 보면 자기주도학습이 더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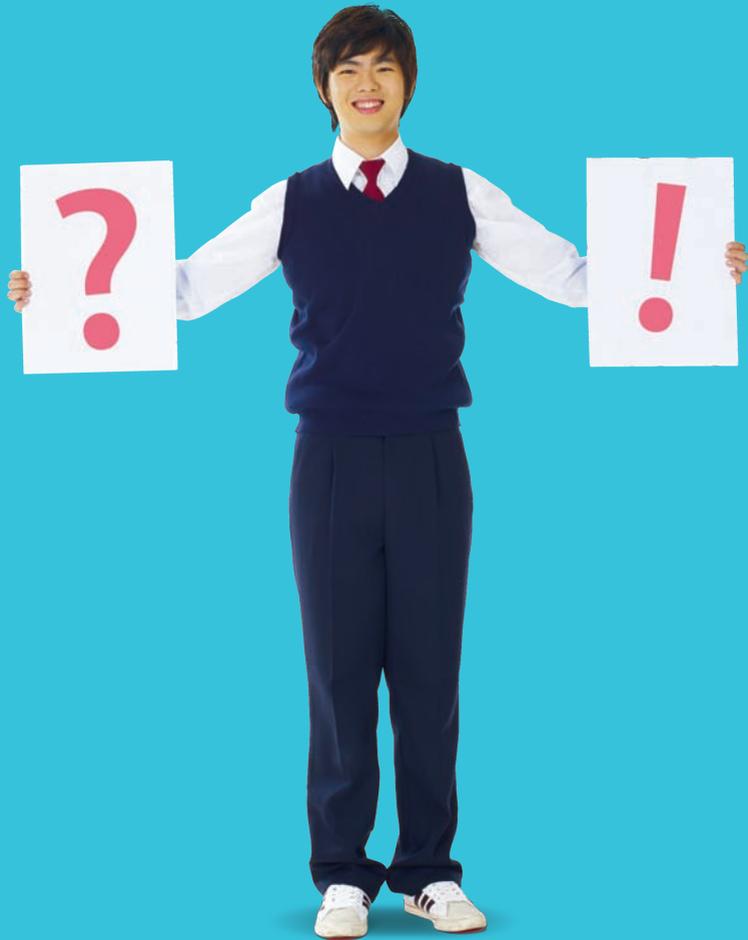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갖고 있다면 당장은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학습 방법을 유지해 주고 복돋워 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주체성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학교성적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시의 학점, 취업 후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으로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습관 만들기



▶ 출처 : 김희삼,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분석」, KDI 연구보고서, 2010. 12
‘왜 사교육보다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한가?’, ‘11년 사교육정책중점연구포럼 자료집,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달라진 교육환경에 대한

교민과 해답



고민

“맞벌이 부부라 방과 후에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학원에 보내는데 ...”



해답

이제, 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서비스로 맞벌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 대다수 초등학교(96%)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야간까지 운영하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1,700개)



- 조기 출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교실도 운영합니다.
- 부모의 출근 시간을 고려한 아침돌봄교실 운영
-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제도 연계 조기 등교학생 안전 보장
- 아침 결식 학생을 위한 간편식 제공

Tip. 돌봄교실 신청은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고민

“특목고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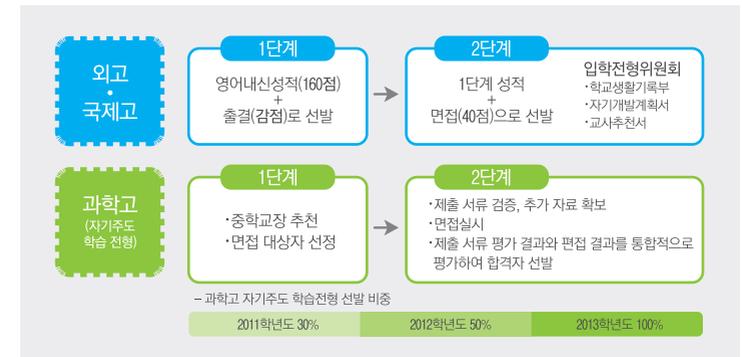


해답

특목고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는 배제되었습니다.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 학교별 필기고사 금지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인증시험, 경시대회,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등 금지
- 면접 시 경시대회 입상 실적 및 각종 인증시험 점수 등을 언급하는 경우 감점 처리
- 내신성적은 외고·국제고는 영어 과목, 과학고는 수학·과학 과목만 반영
- 자기개발계획서 유사도 검증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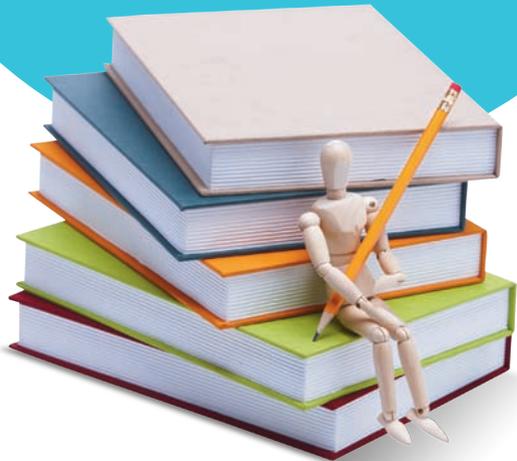
특목고 선발 절차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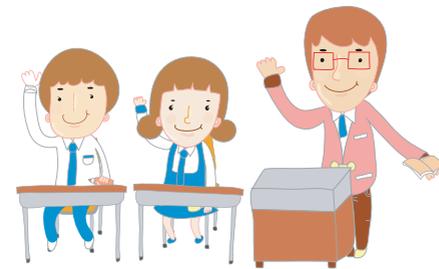
“아이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답

진로상담, 진로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학교별 진로교육 전담 교사 배치를 통해 진로수업과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고등학교에 배치하기 시작
 - ※ 2013년까지 학생수 100명 이상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면 배치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종합 진로 직업정보망인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운영합니다.
 - 맞춤형 직업 정보 및 우리나라 고등학교/대학교 학과 정보 제공
 - 온라인 진로 적성검사 및 사이버 진로상담을 무료로 제공
- 시도별로 진로·진학 정보를 위한 센터를 운영합니다.
 - 온·오프라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진로적성검사, 개인별 상담, 진로설계, 진로정보 등 원스톱 서비스





고민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선
선행학습을 해야 하나요?”



해답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대회 개최를 금지하였고, 특성화 중학교의 입학전형도 자기주도적학습 전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은 필요 없습니다.

- **특성화 중학교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배제하였습니다.**
 -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 금지
 - 각종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결과, 교내·외 수상실적, 영재교육원 수료 등은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대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없거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과 수준의 각종 대회 개최 금지
 - 각종 대회의 출제 문항 수준은 해당 학년 교육과정(교과서)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각종 대회 개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기본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대회 개최 지양
 - 불필요한 경쟁과 비교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대회 개최는 지양 단, 창의력과 잠재력을 중요시하는 대회 개최는 권장





고민

“영어공부,
사교육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

학교 영어수업이 영어의 4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을 균형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용영어 중심의 정규수업과 방과후 영어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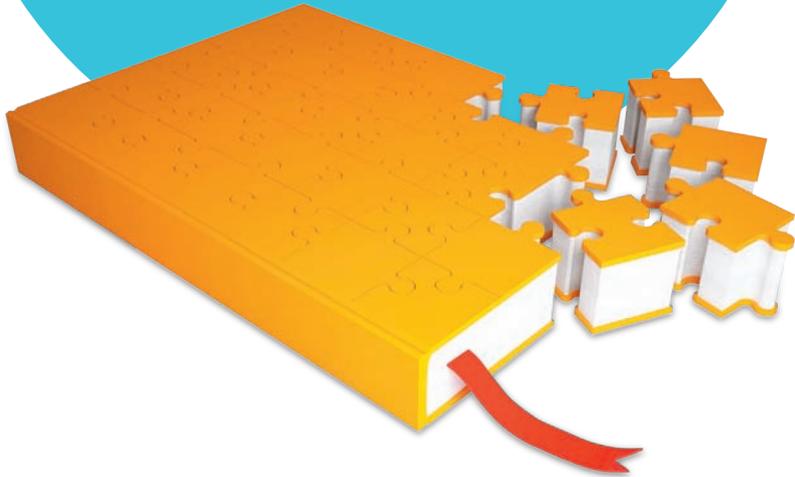
- 학교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선생님과 함께,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이 교실수업을 지원합니다.
 - (초등)주당 영어수업시수 확대
 - (중등)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 및 말하기·쓰기 등 표현능력 중심의 평가
 -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활용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 학교수업이 끝난 후에도 방과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거나, 재미있는 영어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시간 이외에도 즐겁게 영어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초등)영어권 문화상황체험, 영어동화책 읽기, 역할놀이 등이 가능한 ‘영어체험교실’ 이용
 - (중등)원격화상강의, 온라인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영어체험교실’ 이용
 - 방학중 영어캠프 등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단기집중영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 EBS 영어교육방송(www.ebse.co.kr) 말하기·쓰기 연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고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춤식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답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이 학생 맞춤식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를 위하여 인턴교사, 전담강사를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이 학생 맞춤식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턴교사와 전담강사가 정규수업 시간에 학생의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로 인턴교사와 전담강사가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이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도움
- 대학생 보조교사가 방과 후에 학생의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중·고등학교)
 - 방과 후에 대학생 보조교사가 학생의 학습 멘토가 되어 교과학습 등 지도
- 인턴교사와 전담강사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 튜터(개인 지도교사) 역할을 합니다.



아이에게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사교육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4가지 지혜

- 1 무엇이 자녀의 열정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지 관찰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본 결과 어려서부터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보다는 대부분 자신이 흥미로운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커서 뭐가 되겠느냐?’ 고 다그치는 대신 아이가 어떤 분야에 열정을 보이는지 관찰해보세요.
- 2 자녀가 흥미있는 과목에서 먼저 성과를 내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취약점을 보완하려고 가장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과목을 강조하지 말고 아이가 잘하는 과목에서 우선 성과를 내도록 하여 칭찬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 3 부모와의 문답식 대화가 자녀의 지적 발달에 가장 좋습니다.**
아이의 지능 발달에 가장 좋은 건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잦은 문답식 대화라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라도 아이와 함께 토론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주세요.
- 4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습관’에 있습니다. 매일 밥을 먹거나 이를 닦고 세수를 하듯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적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5 학습계획표를 통해 시간관리 하는 법을 길러주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학과공부 뿐만 아니라 예·체능, 사회봉사 등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녀의 시간을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배분해보세요. 학습목표는 희망사항의 80~90%만 세워서 자녀가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해주세요.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기숙



우리 아이에게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길러주세요

1단계 동기부여

자신의 학습 동기를 부여합니다.

공부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
진로에 대한 궁금증은 진학정보진로센터(www.jinhak.or.kr)에서 운영하는 무료 진단검사와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3단계 학습 전략

매일매일 학습플래너를 통해 시간관리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효과적인 시간관리와 올바른 공부습관을 위해서 학습 플래너를 활용해보세요. 아래 표를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다이어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 학습플래너(예시)

학습목표	전교독서왕 (5점:매우 잘했다/4점:잘했다/3점:보통/2점:못했다/1점:매우 못했다)								
	내 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목별 총점
실천계획	일주일에 책 1권 읽기	3							/35
	독후감 한장이상 쓰기	5							/35
실천소감	요일별 총점	8							
학부모 (교사)의견									

2단계 학습 목표 설정

목표는 자신의 이해영역과 속도에 맞게 설정합니다.

학습목표는 자신의 이해영역과 속도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목표는 구체적인 계획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어 세워야 합니다.



4단계 평가

학습플래너에 따라 매일 실천하고 점검하며 수정합니다.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목표와 전략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부모님은 계획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계획표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만 확인해주세요. 간섭이 아닌, 관심이 중요합니다.

- 송실대학교 CK교수학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판수

Tip.

자기주도학습을 학원에서 배운다고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생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워 학습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1 학부모·교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선행학습 폐해와 무용성에 대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부모 설명회, 교원 대상 연수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2 대입·고입 등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과정 운영 점검단'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선행학습 유발학교를 제재 하겠습니다.
- 3 선행학습 극복 수기공모전 개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학교를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다양한 이벤트로 우수 사례를 보급 확산할 계획입니다.
- 4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5 대상별·과목별 선행학습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Step by step, 섬 소녀에서 글로벌 소녀로!

오혜련

1 유년기 : 섬 소녀 눈을 뜨다

대한민국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의 작은 섬 제주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다. 새까만 얼굴의 소녀는 바다 소리를 음악 삼아, 바람 타고 날아온 여름 향기를 벗 삼아 힘차게 달리는 것을 참 좋아했다. 창고 같은 단칸방에 주인집 할머니 눈치를 보며 다섯 식구가 살면서도, 자주 이사를 가는 것이 우리 집이 풍요로워서 집을 사고 또 사는 건 줄로만 알던 천진난만한 아이였다. 머리가 자라서야 집이 엄청 난 빗더미에 앉아 있고, 육아 앨범 넣어 둘 공간조차 없어 친척 집에 이리저리 나누어 맡겨둘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진솔한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가정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나는 여느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것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저마다 학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는 운동장에 남아 철봉을 타고 노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마냥 '제주 섬 소녀'로 햇볕 아래 뛰어놀기만 좋아하던 내가 180도 달라지는 사건이 있었다. 오빠 따라 쫓래쫓래 갔던 서점에서 우연히 나와 동갑내기인 아이가 영어로 일기를 써서 낸 책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럴 수가, 내 나이에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다니. 나도 이제부터 영어로 일기 쓸 테야' 욕심이 앞선 결심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동기가 되어 영어 공부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나는 사촌 언니를 찾아가 무작정 영어를 어떻게 읽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떼를 썼다. 언니가 노트에 크게 적어 준 것은 'a, e, i, o, u = 아, 에, 이, 오, 우' 였다. Phonics를 정식으로 배워 본 적은 없었지만 나는 영어의 자음 소리와 모음 소리를 조합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신기했

다. 거리의 영어 간판이나 전자 제품에 있는 영문 회사명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영어들이 살아 있는 영어 교재가 되었다. 나의 영어 공부법은 아주 간단했다. 지나가는 차들 뒤에 적힌 글자를 보며 그 차의 이름 맞추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따로 없었다. 자동차 박사로 통하던 오빠한테 내가 읽은 게 맞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S의 [s] 소리와 O의 [o] 소리를 조합하여 '소나타[SONATA]' 읽기를 성공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포텐샤[POTENTIA]' 라는 차 이름을 '포..텐..티..아' 라고 읽어 보고는 '도대체 왜 포텐샤라고 읽는 거지?' 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 즈음은 이미 영어의 세계에 퐁당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나는 매일 꾸준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스스로 단어 시험을 보기 시작했다. 단어 시험을 다섯 번째로 100점 맞는 날에는 자축하며 아껴 뒀던 주머니돈으로 초콜릿을 사 먹기도 했다. 달달한 초콜릿이 유난히 더 달콤하고 맛있게만 느껴졌다.

'미국인 흉내 내기'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였다. 영어 테이프를 틀어 놓고는 성대모사를 연습하듯 외국인의 목소리와 억양, 발음, 말투까지 그대로 따라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영어를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팝송을 들으며 한글로 받아쓰기를 하기도 했다. 공 테이프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팝송을 녹음해서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몇 번씩 되돌려 들으면서 가사를 받아 적었다. 물론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몰랐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다. 팝송을 불러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귀를 쫓긋하고 노랫말을 받아 적었다. 그러는 사이 내 안에서 영어를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영어 일기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나는 비빔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비빔밥을
I	eat ate	bibimbab



선생님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어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한글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쓰면 그것을 영어 어순으로 고치고 이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대입해 보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동사의 과거형도 익히고 어휘도 늘려나갈 수 있었다. 서서히 영어에 자신감이 붙자 영어 시간에 발표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향토적인 '된장 발음' 대신 매끄러운 '버터 발음'으로 발표를 하면 친구들이 '오!' 하고 환호를 보냈고 선생님의 칭찬도 이어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서서히 '나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 청소년기(1) : 자신감 UP! 영어 실력도 UP!

그렇게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단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가 되어 있었다. 따로 학원에 가서 배울 수가 없으니 수업 시간에 온 집중력을 동원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의 설명을 빠짐없이 필기하여서 교과서를 거의 자습서처럼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친구들처럼 입시 학원에 다니며 공부한 것이 아니라서 방대한 양을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집에 가서 매일 꾸준히 한두 시간 정도 영어 테이프를 듣고 30분 정도는 단어를 외우면서 영어 공부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였다.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도 나가 학교 대표로 선발이 되기도 했다. 이때에도 어린 시절 '미국인 흉내 내기 놀이'의 효과가 톡톡히 드러났다. 만나는 영어 선생님마다 "어릴 때 외국에서 살다 왔었니?" 하고 질문을 던지곤 했다.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점심시간마다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영어 문법 강의를 해 주었다. 직접 예문을 만들어 주며 설명을 해 주곤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예문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설명을 해 주어야 하니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듣게 되고, 설명을 해 주는 사이 자연스럽게 문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연습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영어 교과에서 특기상과 학업 우수상을 받게 되었으며 입학 시험을 거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3 청소년기(2) : 아픈 만큼 성숙하는 법!

그러나 나의 외고 생활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영어 잘하는 아이로 통해서 나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고등학교에 입학해 보니 나는 우물 안 개구리, 아니 우물 안 올챙이에 불과했다.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와서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친구, 이미 선행 학습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와 선생님의 질문에 거침없이 곧잘 대답하는 친구 등등 말 그대로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한없이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신 있던 영어 과목도 선생님이 해석을 시키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고 모의 토익 시험을 치렀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그때까지 나는 토익 시험이 뭔지도 몰랐다. 처음 보는 토익 시험에서 나의 실태를 낱낱이 보게 되었다. 990점 만점에 510점. 겨우 턱걸이로 반타작은 면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어.' 정신이 번쩍 뜨였다. 지금은 바닥에 있지만 바닥을 차고 날아오르면 더 높이 날 수 있는 법. 나의 한계를 뛰어넘자. 허리를 졸라매듯 더욱더 영어 공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먼저, 단어 공부는 끊임없는 반복과 점검 과정을 거쳤다. 사람의 뇌가 얼마나 무한한 힘을 가졌는지를 이때 맛보게 되었던 것 같다. 빈 교실 칠판을 이용해서 단어를 가득 채워 적었다. 많은 양의 단어를 외워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쓰지는 못했고 영어, 한글 딱 한 번씩 적되 최대한 집중해서 한 번에 외우자는 마음으로 단어를 적었다. 칠판을 가득 채우면 단어가 약 90~100개 정도 되었는데 한 장면으로 묶어서 기억하려고 맨 뒷자리로 가서 칠판을 2분~3분 정도 보며 단어들을 눈으로 익혔다. 그리고는 뜻을 남기고 영어 단어를 지워 바로 시험을 보았다. 그렇게 2~3세트를 반복하면 하루에 단어 200~300개를 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 주 동안 외웠던 단어 중에 무작위로 시험을 보았다. 중학교 때는 하루에 단어 20개만 외워도 버거웠었는데 꾸준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휘가 누적될수록 단어의 어근이나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 재미도 쏠쏠했다. 비슷한 단어, 혼돈하기 쉬운 단어는 따로 정리해서 외워두고 반의어, 유의어는 묶어서 정리해 두었다. 모르는 단어 혹은 궁금한 단어가 있을 때는 절대로 미루지 않고 그 즉시 찾아보았다. 듣기와 말하기 훈련은 짬짬이 영어 라디오 방송 채널을 통해 하였다. MP3로 라디오 청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따라 읽기 훈련을 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귀가 뜨이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다. 받아쓰기 훈련도 병행하면서 정확도를 높여 갔다. 제주 땅에 있지만 외국에 유학 나왔다 생각하기로 하고 최대한 영어를 많이 사용했다. 혼잣말도 영어로 했고, 노트 필기도 영어로 했고, 일기도 영어로 썼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의 구조나 표현해 익숙해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찾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 영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독해나 문법은 학교 수업과 교재를 적극 활용하였다.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학교 보충 수업은 빠지지 않고 충실히 들었고 선생님 설명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서 나만의 문법집도 완성하였다. 중학교 때 직독 직해 훈련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고 수식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문장을 꼼꼼하게 분석하도록 연습을 많이 하였다. 첫 학기에는 기록이 심했던 외국어 영역 모의고사도 어느 시점을 지나니 안정권으로 들었고 1학년 2학기부터는 한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다. 탄탄하게 기반을 쌓아 두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긴장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외국어 영역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국어를 따라하고 흉내 내는 재미를 느끼다 보니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에도 흥미가 생겼고 수능에서 제2외국어로 선택했던 중국어 또한 만점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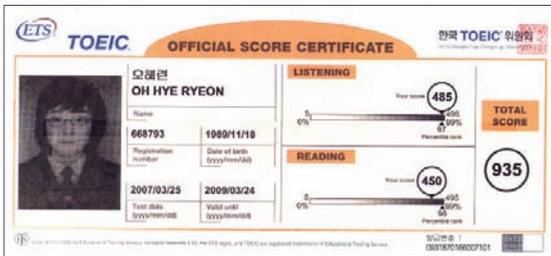


그뿐만 아니라 외국어 관련 대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도전하였다.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참여했던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저조한 성적으로 상을 받지 못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IYF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전라, 제주 지역 3등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IET(International English Test) 전라, 제주 지역 고등부에서 1등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다. 그 외에도 교내 영자 신문부 차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하고 직접 영어 토론부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저녁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로 시사도 공부하고 동시에 말하기 실력도 향상하였다.



이 모든 과정의 성과는 TOEIC 점수가 말해 주고 있다. 물론 TOEIC 시험이 전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그 객관성과 타당성은 공인된 시험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TOEIC 점수를 올리기 위해 유명 학원에 찾아가 유명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고 자기 주도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 효과가 장기적이며 성취감 또한 몇 배로 높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고1 때 510점이었던 나의 TOEIC 점수는 학원 한 번 가지 않고 2년 후 935점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물론 정체된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했기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이 모든 과정은 학습의 동기부터 학습 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까지 모두 순도 100% 스스로 겪은 과정이다.

부모님은 한 번도 나에게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하고 강요하신 적이 없다. “시험을 잘 보면 예쁜 학용품을 사 준다.” 라는 조건을 걸어 주신 적도 없다. 그렇다고 시험을 못 봤다고 질책하고 나무라신 적도 없다. 어린 시절부터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건 “스스로 해결해 보렴.”, “더 열심히 찾아보렴.” 하는 당부가 전부였기에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숙제도 해 주시고 시험 잘 보면 선물도 주시는 걸 보며 어린나이에 오른손 손가락에 굳은 살이 베도록 킁킁대며 혼자서 숙제를 빼곡하게 해 나가게 하시는 부모님이 야속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려서부터 철저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 고3 3월 토익시험 성적표



4 현재 : Keep Running and Running !

대학생이 된 지금도 나는 달리고 있는 중에 있다. 고등학교 시절 피부로 경험하였던 노력, 집념과 뚜렷한 목표를 엔진 삼아 계속해서 도전한 결과 각종 외국어 관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매 대회에 참여할 때마다 결과나 경쟁률을 떠나,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훈련이고 배움이라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도전하다 보니 어느새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아직은 도전할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실력을 쌓고 도전해야지.’ 하며 미루다 보면 끝이 없다. 잘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다 보니 실력자가 되는 것임을 나는 경험을 통해 직접 느끼게 되었다. 좀 더 능동적으로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 대학 영자 신문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 회의의 진행 요원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실, 교육청 주관 멘토링에도 참여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어 말하기 부문 금상 (1위)▲



TOEIC 경시 대회 우수 (2위)▲



외국어 말하기 부문 장려(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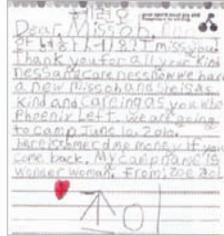


외국어 에세이 부문 최우수(1위)▲





캐나다 수업실습 (태극기 그리기) ▲



캐나다에서 도착한 편지 ▲

실제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영어 멘토링에서 7명 중 6명의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훈련을 통해서 30점 이상의 점수 향상을 이루어 내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 영어 방송을 들으며 '언젠가 나도 꼭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 했던 마음 품었던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KCTV와 아리랑방송 PD님께 직접 e-mail을 보내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캐나다 교육 실습 인턴십에도 참여하여 Nova scotia에 있는 Berwick and District School에서 6주간 해외 교육 실습 기회도 갖게 되었다.

1년의 휴학 기간 동안에는 한 IT 회사의 글로벌 마케팅 부서에도 지원해 대리직을 맡게 되기도 하였다.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에 나가 무역 박람회에서도 통역하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불우한 상황과 환경, 온갖 여건의 벽들을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자 배움이며 진보이고 성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중남미 무역사절단 상담회 현장 ▲



5 Epilogue

'남들이 하나까 나도 한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하는 풍조 속에 사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급류에 휩쓸려 마구 달려가다 정신을 차려 보면 엉뚱한 곳에 와 있을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평생 동안 학습하고 배워 나가야 하는 '평생 교육'의 시대 속에서 언제까지 절름발이처럼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에게 기대 살 수 는 없는 노릇이다. 진정한 학습과 배움은 수동적으로 훈련되는(being trained) 사교육 현장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부딪쳐 보고 도전하고 경험해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공부해야 할 목적과 이유를 스스로 찾고 능동적으로 훈련하며(training oneself) 도전할 때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임을 나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였다. 머리는 자라지만 마음과 정서는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자아 정체감의 혼란 속에서 심각한 정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머리와 마음, 정서가 균형 있게 무럭무럭 자라려면 결국 학습자 자신이 배움의 주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닌, 스스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